

내면의 세계에 좀 더 귀 기울이길

달라이라마, btn 통해 한국불자에 메세지 보내와

부처님오신날은 불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불자들에게 항상 이야기 하는데 그들이 중국 불자들, 한국 불자들, 티베트 불자들 상좌부 전통을 따르는 불자들은 우리 불자들이 21세기의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외부적 실재와 내면적 실재에 대해 설명 하실 때 아주 진지하고 저명한 현대 과학자들은 실재에 대한, 마음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킨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지난 30여 년 동안 현대 과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실재에 대해 특히 감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아주 행운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를 되풀이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불자로서 특히 21세기의 불자로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불교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부해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무엇인

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든, 아니면 인과의 법칙이 있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 누구도 더 많은 문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는, 문제의 씨앗은, 문제를 일으키는 궁극적 요인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디 내면의 세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럼으로써 개인의 차원, 가족과 사회의 차원,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가치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내면의 세계에 대한 거의 최고의 설명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종류의 믿음, 즉 창조주나 신 같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대한, 파괴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기에 대한 불교의 설명에서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설명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 것을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각(正覺), 생명의 등불!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련 스님

신록의 푸른 봄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따스한 미풍이 자비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오늘,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의 정신문화사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며, 우리 중생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명의 진리와 삶의 고귀한 의미를 밝혀주신 위대하고 거룩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중생에게 올바른 깨달음(正覺)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정각이란 생명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본성은 부처님이나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며 그 원천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다만 청정한 불성의 바탕에 아직도 무명의 구름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중생의 삶에는 생사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카발라성의 태자로 태어난 부처님은 탄생계에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가장 존귀하다. 삼계의 모든 고통을 내가 꼭 평안하게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

安之]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아직도 전쟁과 살생, 종교간 갈등, 경제적 빈곤과 실업, 그리고 기아에 고통 받는 이웃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탐·진·치 삼독으로 인하여 환경은 오염되어 가고, 인간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난제들을 부처님의 올바른 깨달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대의 불교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바르고 깊은 마음에서 샘솟는 불심은 이 혼탁한 세상과 오염된 환경도 정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보살도의 원력과 정진으로 온 세계가 부처님 가르침의 서광으로 가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각을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실천하는 데 부처님 오신날의 진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날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모든 원력이 모두 성취되고, 부처님의 도량이 걸려있는 오색의 등불처럼 온 세상에 평화와 안락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 생명존중, 상생추구 본받아야

정진석 가톨릭 추기경,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세지

천애하는 불자여러분!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신 모든 불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교 최대의 축일인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생애와 설교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에 걸쳐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명과 자연에 대한 존중, 진리와 상생의 추구 및 한없는 자비와 부단한 수행 등은 모든 사람이 본받고 행해야 할 덕목입니다.

나라 안팎에서는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나눔과 자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실천으로 나타날 때 이 세상은 더욱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올해 봉축행사의 주제인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이 더욱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눔과 수행의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천주교 신자들을 대신해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모든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발원 합니다

법등 스님(국제구호NGO 더 프라미스 이사장)

눈부신 5월 부처님께서 오신 계절입니다. 스스로 만족 할 줄 아는 마음에서 평화와 행복이 생겨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비심이 살아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불교는 상대적 이분법을 벗어난 '나눔'과 '더불어 함'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유기적 관계를 가진 모든 생명들이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우리 불교계 NGO들의 이념에는 이러한 생명존중과 관계중심의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만족 할 줄 알아

서, 작고 가벼운 것이라도 나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들에 대한 존중을 실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소하고 미미한 것이라도 자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와 연관되어진 모든 관계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인간이 평화로워 질 것이며, 모든 생명의 관계들이 건강하게 유지 될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국민들이 생명사랑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자신의 가진 것에서 조금이나마 나눔을 실천하는 해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까닭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모두 같습니다

성관 스님(국제구호NGO 로터스월드 이사장)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천만 불자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사부대중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열반경에 이르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은 일체 생명의 가치가 모두 같음을 일깨워주시기 위함' 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북한 등 제3세계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로터스월드의 발걸음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으로 심지를 삼고, 자비를 기쁨으로 삼으며, 공덕으로 빛을 삼는다"는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아타 정신이 깃들고, 나와 가정,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이 되길 손모아 기도합니다.



사회 갈등 해소 계기되길

퇴휴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자리아타 정신이 사부대중들의 거정에 함께 하길 기원하며, 살아 있는 모든 생물에겐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보길 기원합니다.

지금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소통부재로 인한 빈부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종교의 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관계는 점점 틀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돼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원력을 안고 오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근본정신인 정토사회가 구현되길 서원합니다.

나눔과 희망의 등불을 밝힙시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부처님오신날을 다함께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중생계에 나투시어 개시오임의 문을 활짝 열고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기쁜 날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성스럽게 신수봉행하고 이웃들과 손을 맞잡고 다함께 화합과 평화를 발원합니다.

새해 원단에 말씀드린 바대로 올 해 정진 구호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자각자구'로 정한 것도 우리들의 마음과 원력을 다함께 모아 지혜롭게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불자들 모두가 제자살을 찾아 유정·무정 중생들이 다함께 행복하길 기원하는 '자비나눔의 등', '민족문화 자존을 위한 수호의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을 달고 다함께 나눔과 희망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열린 불자가 됩시다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제자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開] 보이려고[示] 깨닫게 하려고[攝] 들게 하려고[入]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어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발심하여 실천하기에 발심함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부처님의 지견(知見)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또 공부를 바탕으로 이웃과 나누는 불자가 됩시다. 자비를 닦아서 지혜에 드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어 우리의 불도가 수승하면 할수록 모든 이웃과 사회대중에게 열린 자세를 견지합시다.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고 열려 있다면 우리의 삼보파지(三寶保持)는 영원하리라, 이것이 곧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기쁨과 나눔 확산 위해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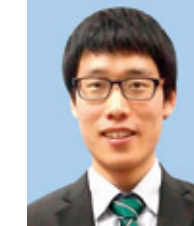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부처님오신날은 이제 더 이상 불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봉축 문화마당은 종교를 초월하여 타 종교와 전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을 널리 펼치려는 우리 불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 모두가 그 어느 때 보다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봉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의 모든 청년불자들은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에 보다 많은 이웃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쁨과 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취업 문턱에서 부처님처럼 살길



이인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시금 돌아켜보는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길을 걱정하고 있는 오늘 '대ભ려된 범우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켜보게 합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학생 불자들은 다시금 서원을 세워 봅니다.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익숙하고 당연함이 아닌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범회를 열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데 항상 적극적이며, 함께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서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큰 법을 전하자



임희웅 포교사단 단장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스스로 무명을 밝히는 포교사가 되고, 가장 낮은 자세의 봉사 통해 모든 분이 다 함께 부처를 이루는 그날 까지 신명을 바쳐 활동하는 포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행과 수행을 통해 무분별지(無分別智) 경계를 뛰어 넘어 대아(大我)를 이루는 무분별후득지(無分別後得智)의 경계에서 진공묘유의 실상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불국토 건설에 매진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만이 이 사회와 민족국가를 평화롭게 하고 미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념이나 지역, 그리고 계층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슬림하여 제법실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행복의 부처님, 축복의 부처님, 화합의 부처님이 함께하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 코끼리처럼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

온 숲의 왕인 코끼리의 발자국이 모든 발달린 짐승의 발자국의 흔적을 지우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성제법 곧 '일체는 고(苦)라는 진리, 고의 원인은 갈애라는 진리, 고를 그치게 할 수 있다는 진리, 고의 그침에 이르게 하는 길에 대한 진리'는 예와 이계의 모든 숭고한 진리가 그 안에 포함되는, 헤아릴 수없이 크나큰 진리의 빛이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도도하게 흘러가게 한 진리의 강을, 물 표면에 떠가는 토끼나, 물의 중간을 떠가는 말이 아닌, 강바닥을 굳건히 디디고 가는 코끼리의 발걸음으로 건너가는 것이 부처님의 큰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십선계 실천으로 지혜 밝혀



최용준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현실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이웃종교를 인정해주고, 타인을 힐난하기 보다는 나 자신 먼저 참회하며, 부처님과 일치하고자 기원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다시 새롭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되새기면서 빈자일등의 정신으로 모두 함께하는 지혜광명의 등, 자비실천의 등을 밝힙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먼저 살생중죄, 투도중죄, 사음중죄, 망어중죄, 기어중죄, 양실중죄, 약구중죄, 탐애중죄, 진애중죄, 치암중죄의 십선계(十善戒)를 실천하십시오.

국가적 난제, 갈등 해결 기회로



하복동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우리 공무원 불자를 비롯한 모든 불자들은 다시 한 번 큰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난제와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을 받아 들이려 큰 바다를 이루려도 그 맛은 오로지 한 맛, 소금의 맛이듯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부딪치고 갈등하면서 요동치더라도 결국은 부처님의 정법(正法) 아래 잦아들 것이니, 오늘을 사는 우리 불자들은 더욱 더 정진하고 수행하여 부처님의 정법 수호와 실천에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겨울 앞에 꽃을 놓으면 꽃이 나타나는 것이고, 허공을 비추면 허공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온갖 종류의 상(相)을 반영 하듯이 존재의 모든 현상이 공(空) 속에 있음이니 우리는 마음 속에 번뇌를 여의고 청정한 자성(自性)을 되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